

치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자료

발행처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발행일 2018년 7월

발행인 연병길

편집 윤선경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4 가천뇌과학연구원 4층

copyright©2018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발행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가 있어도,
치매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치매 바로알기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광역치매센터
인천광역시



본 교육 자료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계신 지역주민, 다빈도 업소 및 기관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교육자료입니다.

C O N T E N T S

04 page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 1. 치매안심마을이란 04
- 2. 치매안심마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04

06 page

치매 바로알기

- 1. 치매에 대해 왜 알아야 할까요? 06
- 2. 치매란? 07
- 3. 치매의 주요증상 및 치매환자의 특징 08
- 4. 치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09

10 page

치매환자와 함께하기

- 1. 알아차리기 10
- 2. 다가가기 12
- 3. 배려하기 13
- 4. 도움주기 13

14 page

치매 예방하기

- 1. 치매예방수칙 3.3.3 14
- 2.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 15
- 3. 치매예방 운동법 15
- 4. 치매종합정보 포털앱[치매체크] 16
- 5. 치매상담콜센터 17

18 page

상황 및 장소별 대처요령

- 1. 상점, 슈퍼 등 쇼핑센터 18
- 2. 은행 등 금융기관 19
- 3. 식당 등 외식업체 20
- 4. 교회 등 종교 단체 21
- 5. 운동, 레크레이션 등 여가 서비스 23
- 6. 헬스케어
 - 1) 병원 23
 - 2) 약국 25
 - 3) 가정방문서비스 등 26
 - 4) 치과 의료기관 27
- 7. 경찰서 및 소방서 28

30 page

인천광역시 치매전문기관 현황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진단을 받은 사람의 존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주민 모두가 함께 치매를 극복해 나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입니다. 치매안심마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치매에 대해 배우고 치매환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돌보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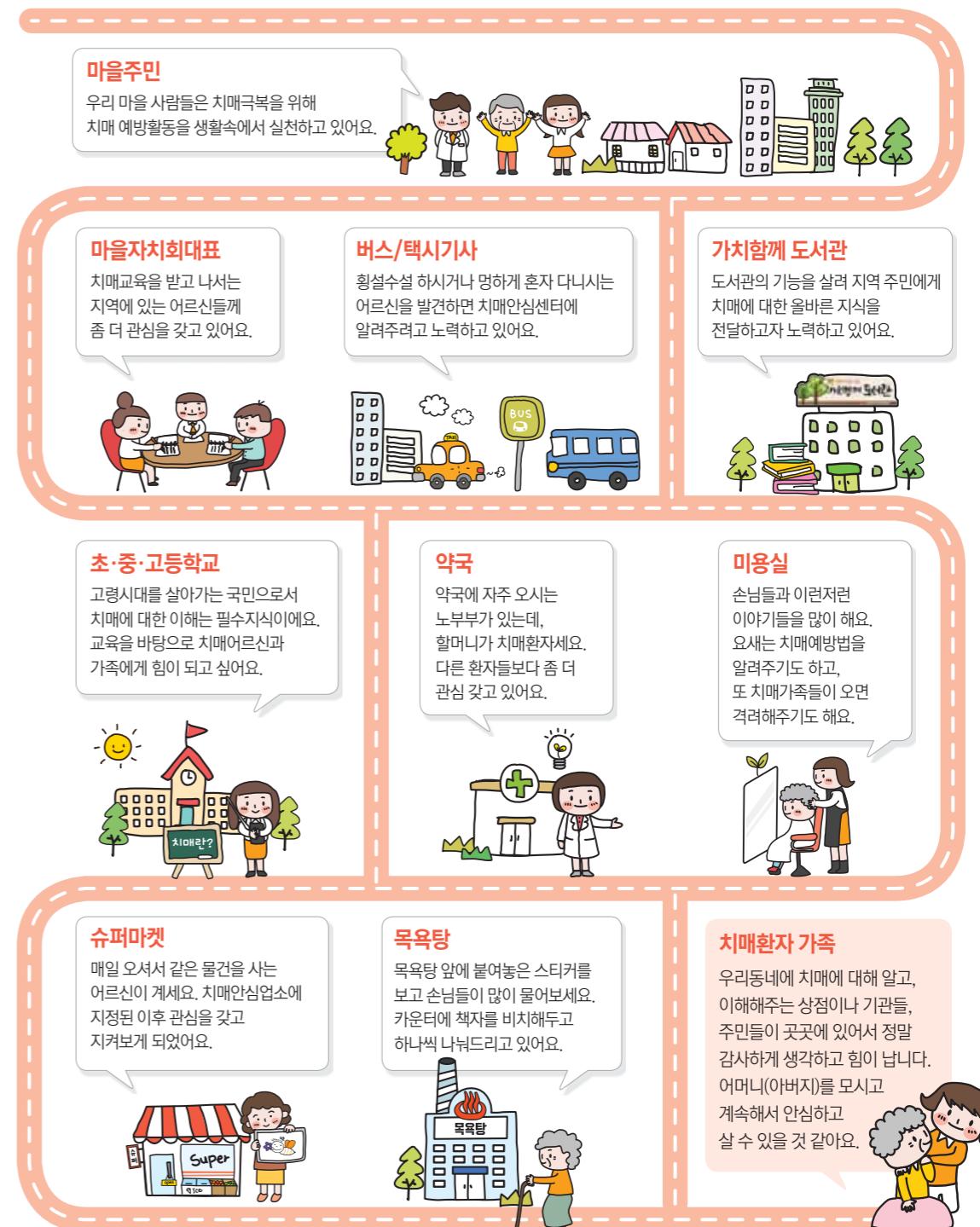
1 치매안심 마을이란

마을주민 모두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치매예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치매극복에 앞장서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배려하며,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2 치매안심마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1) 치매에 대해 관심 갖기
- 2)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알기
- 3) 치매파트너에 가입하기
- 4) 치매예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 5) 치매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치매환자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
- 6)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 7) 치매 친화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예) 큰 글씨 사용, 쉬운 단어와 사진으로 구성된 메뉴판, 눈에 띠는 화장실 표시 등



치매 바로알기

1

치매환자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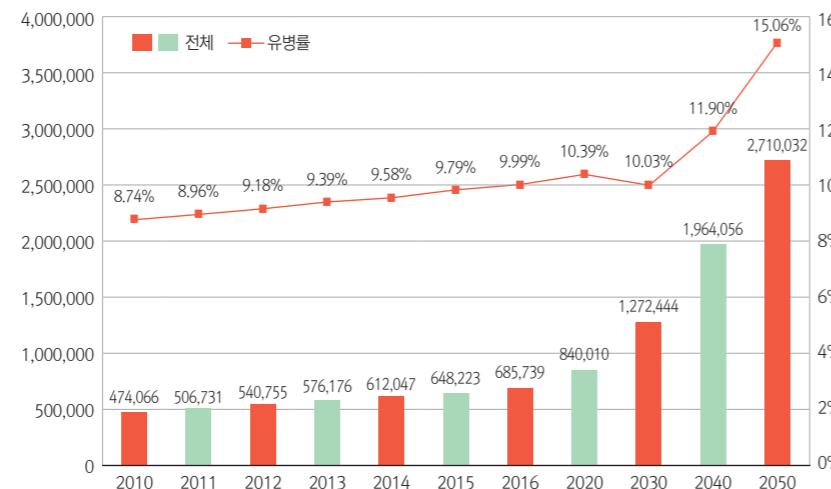
**치매에 대해
왜 알아야
할까요?**

20년마다 두배

2018년 72만 → 2030년 127만

치매는
암보다 더 흔합니다.
85세 이상에서는
1/3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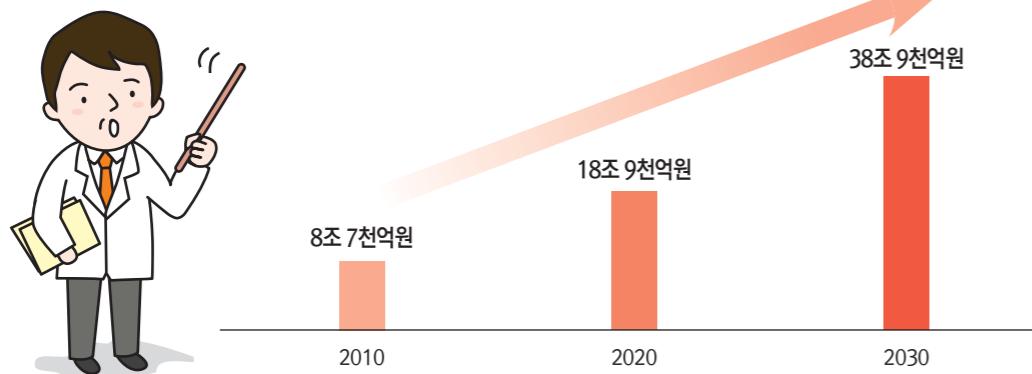
치매로 인한 부담증가

1인당 연간 치매비용 1,851만원

2030년 국가치매비용 38조 9천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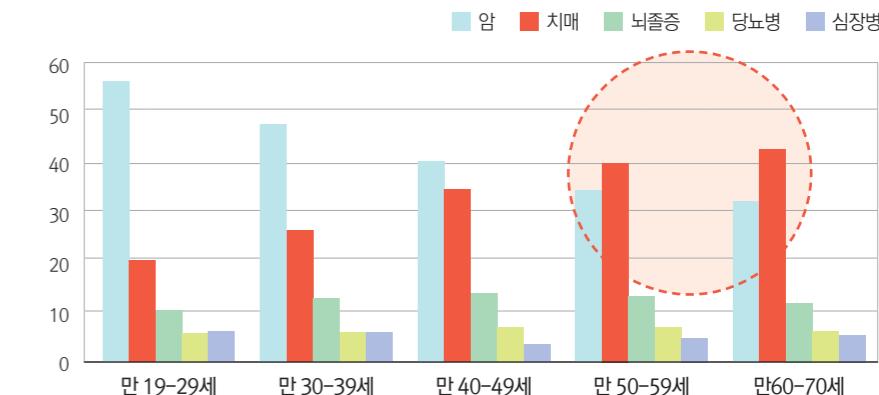
치매환자 1인당 조호비용 2,159만원

국가 총 치매비용 및 예상증가율 10년마다 두배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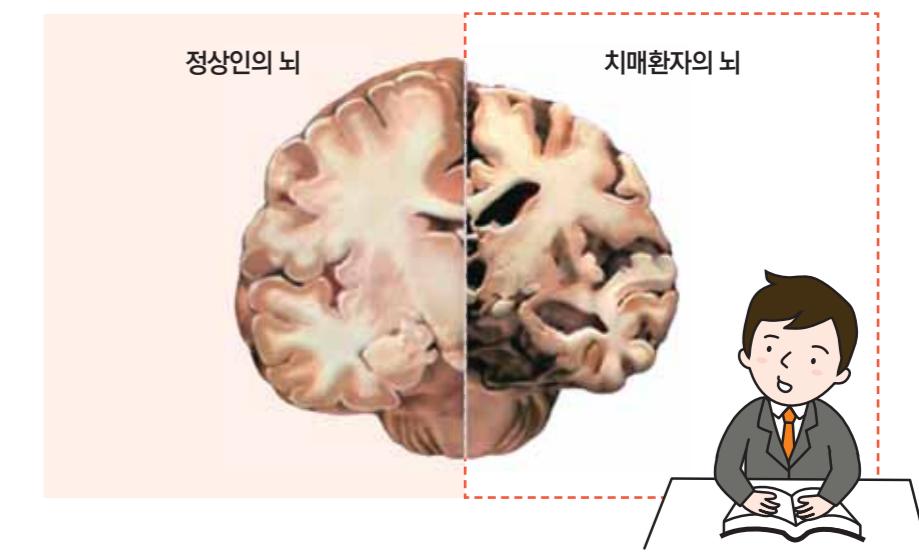
전국민 10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 결과, 치매! 가장 두려운 병

연령별 가장 두려운 질환 : 1+2순위 (단위: %)



2 치매란?

치매란 뇌 질환으로 발생하며, 기억력뿐만 아니라 지남력, 언어능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되어 통상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상태로 다양한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증상을 총칭하는 일종의 증후군입니다.



3
**치매의
주요 증상 및
치매환자의
특성**
**인지증상****대표적 증상** 치매환자의 특성**기억력
저하**

- 중요한 약속을 잊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 오래전 일은 기억하지만 최근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 최근 일을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언어능력
저하**

- 언어구사능력이 저하되어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 말이 짧아지고 자주 끊어지며 대화가 빈약해집니다.
-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 타인의 이야기를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공간
파악능력
저하**

- 연도, 날짜, 요일, 시간, 계절, 낮과 밤을 혼동하고 실수합니다.
-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잊고 혼동하게 됩니다.
- 오랫동안 지내던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 가까운 이들의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 때로는 집안에서도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행기능,
판단력
저하**

- 가스렌지나 텔레비전 등 간단한 가전제품을 조작하지 못합니다.
- 돈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정신행동증상**대표적 증상** 치매환자의 특성**망상**

-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 집안에 낯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 가족이 자신을 미워하고 버리려한다고 합니다.
- 배우자나 가족을 의심합니다.

치매환자가 보이는 증상은 크게 인지증상과 정신행동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동증상****초조증상**

- 없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 가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손짓을 하거나 집으려 합니다.

- 무표정,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기피합니다.

- 불면증을 호소하고 식욕이 저하됩니다.
- 자주 자살을 생각합니다.
- 무덤덤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 쉽게 불안해 하고, 이유 없이 자주 서성거립니다.

- 배회하거나 자꾸 나가려 합니다.
-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냅니다.

수면장애

- 불면증을 호소합니다.
- 낮과 밤이 바뀌고, 밤에 깨어 있습니다.

※ 모든 치매환자들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치매의 원인과 진행정도 등에 따라 다르고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4
**치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치매의 근원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기발견하면 완치가능한 치매도 있으며 다양한 약물과 비약물치료로 증상악화 및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사고와 합병증을 막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치매는 나이, 문화, 성별, 학력 그리고 경제적 상태에 상관 없이 누구에게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치매초기에는 예전 기억보다는 최근 기억에 대한 소실이 큽니다.

기억력이 괜찮으면 치매가 아니다.

기억력이 괜찮은 치매도 있습니다. 초기증상은 뇌손상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매환자와 함께하기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도움절차



1 알아차리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선 평소에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자신감이 부족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복잡한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움직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고 부끄러워합니다.
- 부정적인 감정, 좌절감, 우울을 가지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인지기능 등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감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치매환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치매를 앓고 있는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일지도 모르는 단서들

행동을 지켜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 같은 말을 되묻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
-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
- 정확한 이름을 대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 기분이나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온다.
- 상황과 장소에 맞지 않는 감정을 표현한다.

2 다가가기

치매환자들은 지금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어 가며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재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안심시키고 실수에 대해 지적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께요.”,
 “저 역시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해요.”

논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덕분에...감사해요.”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3 배려하기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 야단, 지적, 무시하는 표정과 말은 삼가도록 합니다.
- 육박지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천천히 조용하고 낮은 톤으로 대화합니다.
- 한 번에 한 가지씩 짧게 끊어서 명확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습니다.
-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격려합니다.
-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손짓, 몸짓, 표정 등)을 활용합니다.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응과 태도

4 도움주기

가까운 지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배회 치매환자 발견 시
182, 112



이렇게 해주세요!

관심갖고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다가가기	배려하기	소통하기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지켜봐주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소개하며 안심시켜주세요	도움 필요 여부에 대해 의사를 물어봐주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도움을 거절하면 혼자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

이 방법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안정을 취한 뒤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권유하거나, 보호자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해 주세요.

치매 예방하기

1

치매예방수칙

3·3·3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세요.

3권(勸) 즐길 것

운동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독서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쟁겨드세요.

식사

2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

구분

치매예방수칙

- 하루 세끼를 꼭 쟁겨드세요.
-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운동을 하세요.
-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장년기

-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은 꾸준히 치료하세요.
- 우울증은 적극 치료하세요.

노년기

- 매일매일 치매예방체조를 하세요.
-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세요.
- 매년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세요.

3

치매예방
운동법

뇌신경체조

손과 안면근육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뇌신경을 자극하는 체조

얼굴 두드리기-삼차신경 및 안면신경 자극

양손가락으로 이마(눈썹 포함), 불(콧날 옆), 입술 상부(인중 포함), 턱을 순서대로 2회씩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2회 반복합니다.



다양한 운동법이
포스터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치매도서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체조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통해 뇌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킴

온몸 자극하기-어깨 회전범위 확대, 상체 혈액순환 촉진 및 뇌자극



머리박수

손가락 끝을 세워 머리를
경쾌하게 두드려줍니다.

어깨박수

양손으로 어깨를
두드립니다.

엉덩이박수

양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립니다.

세로박수

양손을 세로로 세워
박수를 칩니다.

3금(禁) 참을 것

절주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금연



담배는
피지 마세요.

뇌손상 예방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行) 쟁길 것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소통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치매조기발견



매년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세요.

4
**치매종합정보
포털앱
[치매체크]**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 어디서나 이제는 하나의 앱인 ‘치매체크’로 다양한 치매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위험체크

간단한 검사를 통해 치매위험 여부를 확인 가능

**돌봄서비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전문인력의 부담을 덜어 주는 환자관리, 상담서비스 기능이 있으며 돌봄정보 수록

실종대응가이드

치매환자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서비스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 치매환자의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

**뇌건강트레이너**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뇌 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치매의 생활 습관적 위험 요인을 꾸준히 점검·관리하여, 스마트한 생활 유지에 도움

서비스박스

치매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시설정보, 자조모임, 뉴스레터 구독하기, 알짜정보네비게이션 기능 추가)

치매극복함께하기

치매파트너 신청 및 캠페인 참가하기, 희망메세지 보내기 기능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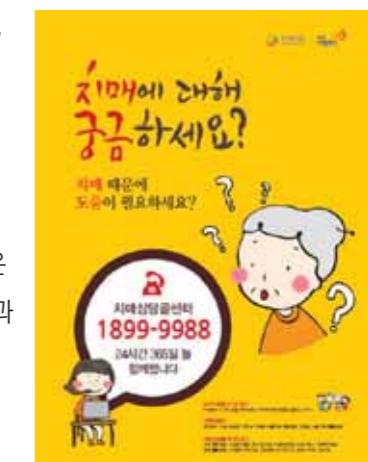
5**치매상담콜센터**

치매에 대해 궁금하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 치매에 대한 궁금증과 도움을 전화 한통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및 치매환자 간병관련 다양한 정보에 대한 궁금증 해결 등 치매에 대한 모든 상담 가능
-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문훈련을 받은 치매전문상담사가 24시간 365일 정보상담과 돌봄 상담을 무료로 제공



상황별 장소별 대처 전략

치매로 인해 동반될 수 있는 기억력저하와 혼란스러움은 개인의 쇼핑, 은행 업무처리 등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이나 업소에서는 치매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치매교육을 받은 직원을 배치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점, 슈퍼 등 쇼핑센터

상점이나 쇼핑센터 등은 치매환자에게 특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필요로 하는 물품의 이름과 매장 내 위치정보를 알아야 하고 물품을 선택하고 계산하는 등이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

- 똑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구매하거나,
- 가격 및 판매에 대한 오해,
- 상점을 떠나기 전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림,
- (신용)카드 사용의 어려움,
-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없거나 상품 이름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
- 셀프서비스코너의 식품 결제 전 야채 등의 무게를 재거나 포장하는 것,
- 결제 시 고객 등록번호나 포인트, 할인 코드(쿠폰) 정보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



이러한 과정과 문제들은 치매환자에게 혼란스러움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가 여러 단계 및 과정의 지시나 설명들을 따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경우 종종 계산대에서 5개 이상의 질문에 답해야 하며, 이는 치매환자에게 버겁고,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일 경우, 직원들이 접근하여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천천히 말하면서 상대방이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필요 한 물품을 찾도록 돋고, 한 번에 하나씩 작업을 완료하도록 돋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13page, 치매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참조)

다른 방법으로는 상점의 주요 위치에 대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도나 안내지를 제공하고, 보기 쉽고 명확한 표시들을 사용하며, 결제 시 묻는 질문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친화적인 제안으로는

계산을 위해 배려 받을 수 있는 편안한 줄(lane)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줄(lane)은 고객에게 충분한 시간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치매환자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 밝은 색 바탕에 기본 검은 글자가 있는 간판을 각 통로의 끝 부분에 큰 글씨로 표시해 주세요.
- 상점 내의 상품의 위치를 변경하는 빈도를 되도록 제한해 주세요.
- 고객의 업무를 돋기 위한 직원을 지원·배치해 주세요.
- 주문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2 은행 등 금융기관

지역 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고객들에게 특히 중요한 역할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치매환자들은 금융관련 사기와 보이스 피싱 등 기타 금융 착취에 더욱 취약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또는 전화를 이용한 사기나 재정적 학대 위험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합니다.



💡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평소 노인 고객을 유심히 관찰하고 소비 습관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치매환자를 보호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잦은 인출, 계산 오류, 소비의 갑작스러운 변화, 많은 액수의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수 없거나 재정적 학대가 의심되는 고객에 대한 우려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부 방침은 직원들이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치매노인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재정적 학대 가능성성이 높은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에 연락하여 재정적 학대 등 문제 가능성을 조사하게 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식당 등 외식업체

외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인지저하로 인해 기억력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

- 음식을 주문하는 것,
- 사교적인 대화를 하는 것,
- 화장실을 찾고 돌아오는 것,
-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독창적인 화장실 표시는 치매환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은 보통 주문한 것을 자주 잊어버릴 수 있으며 메뉴의 범위와 사이즈, 수량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에 버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반복된 질문을 하며 직원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치매 친화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직원을 교육하고, 이들로 하여금 치매환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기다리는 직원은 주문 시 가능한 옵션을 좁혀줌으로써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화장실 표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화장실 문은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4 교회 등 종교 단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한 치매환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나 간병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은 병을 앓기 전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친숙했을지 몰라도,

- 찬송가나 경전과 같은 큰 책에서 선택한 부분을 찾아내야 하거나, 표시를 읽거나, 안내지시를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화장실을 가기 위해 올바른 문을 찾거나,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들은 조용한 시간에 크게 말을 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행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으며, 가족들이 종교활동 참석을 중단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종교 활동의 연결을 끊게 될 수도 있습니다.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치매 친화적인 종교 공동체는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 누군가가 종교 활동 참여를 중단한 것을 알아채고 그러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치매환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돋보는데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치매 친화적인 활동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에게 치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 건물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
- 치매 환자와 가족, 간병인을 중심으로 ‘치매의 날 예배’ 서비스를 개최 하는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종교단체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 치매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개인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게 됩니다.
- 치매 친화적인 종교 활동은 짧고 단순하며 일반적인 것이 좋습니다.

- 주간회보와 같은 서면자료가 과하지 않은 내용의 하얀 바탕 안에 검정색 큰 글씨로 작성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지판 등도 흰색 배경에 큰 검정색 글자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합니다.
- 자원봉사자들은 종교 의식을 위한 안내에 따르거나 책에서 적절한 구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들에게 친구처럼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 옆에 앉아서 따라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 있고 명확한 표시로 표시된 화장실은 치매 환자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들의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단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용이나 버스를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확인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의식 동안 누군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경우, 야외나 정원에서 대화를하거나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 종교기관의 통로는 조명이 잘되어야 하고 작은 깔개나 복잡한 패턴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치매 환자들에게 구멍이나 다른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종교단체는 음악과 미술 분야에 대한 참여를 통해 치매 환자들의 삶에 기쁨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환자와 그들의 친구 혹은 가족, 간병인으로 구성된 합창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페’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활력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메모리 카페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모일 수 있는 편안한 환경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페는 음식, 음료 뿐 아니라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질문에 답변 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가를 모실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카페는 지지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치매환자와 그들의 간병인이 당혹스러움 없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운동, 레크레이션 등 여가 서비스

치매환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들이 일상에서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체육센터, 피트니스 센터, 동호회, 친목회, 독서 및 뜨개질 클럽 등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나 모임을 통해서 치매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경쟁이 심하지 않고, 신체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기방식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치매환자들이 운동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 채 그들이 좋아하는 신체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제공하면 그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들은 치매환자들이 단기기억의 부재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6 헬스케어

1) 병원

환자들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기억상실이나 인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치매에 걸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 치료를 복잡하게 만들고, 약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만성질환 관리 등 치료계획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병원은 치매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이라는 공간에 밝은 빛, 소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이 버겁다고 느끼게 되면, 의료진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때론 화를 내기도 하는 등 의료종사자에게 협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기억력의 문제는 치매환자들을 해매게 하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들은 종종 병원에 입원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며, 퇴원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 감염이나 치료받지 않은 통증은 섬망이나, 동요 및 협조거부 등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치매 환자들을 의료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반드시 적절한 대처와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능한 질병 초기에 치매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의 중요한 목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기존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일차 의료 제공자는 환자가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프로그램의 연결을 장려해야 합니다.
- 치매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지침을 따르는데 있어 자신의 제한점을 인지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이나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결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 치매환자를 치료할 때, 병원은 불필요한 소음, 대화, 지나치게 번쩍이는 조명 또는 버저 및 불필요한 인력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의 경우 조용한 장소로 안내하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숙한 사람과 동반 하에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상태와 환경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환자들이 안정을 유지하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들이 검사와 다른 진단적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옵션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치매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

- 방황(배회)은 치매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치매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그들은 지루해하며 침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방황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따라, 치매 환자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있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낯선 환경과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안심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약국

치매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기억력 및 지시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시대로 약을 복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두 명 이상 만나고 약물 상호작용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병 병력을 가진 경우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사는 치매를 가진 사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치매의 징후로는

-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부적절한 관리,
- 불규칙한 약물 복용,
- 동일한 문제로 인한 반복된 약국 방문,
- 중요한 처방전을 두고 오는 행위,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관련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치매환자가족 등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이 도움을 받도록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고,
- 가까운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연계하는 것으로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글자를 모를 경우, 해나 달 그림 등으로 약 포장지에 표시해 주는 것 도움이 됩니다.

3) 가정 방문서비스 등

치매환자의 기억력 저하는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치매 환자들은 약속한 치료 일정에 오지 않거나, 가정 건강방문을 일정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 치매는 스스로 운동이나 또 다른 치료계획을 수행하고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가정방문은 그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며, 건강 및 치료와 관련하여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쉽게 식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치매 환자와의 약속에 앞서 미리 전화를 하여 일깨워주는 것은 약속 시간이 매우 가까운 시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유용합니다.

전날 혹은 수 시간 전 전화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치료사와 가정건강서비스제공 직원은

- 치매 환자를 돌봐줄 간병 인력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고, 돌봄제공자가 함께 거주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 필요할 경우, 치료 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간병인과 직접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이 운동 계획이나 다른 지시사항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치료사 또는 직원은 녹화한 영상을 제공하거나, 간병인이나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지침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치매 환자를 위하여 운동프로그램과 지시사항은 짧고 간결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끔씩 후속 전화를 걸면 질문이나 관련 문제를 재확인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비디오나 서면 지침을 확인하도록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치매 환자의 집에서 학대 가능성성이 있는 경우, 치료사 또는 가정 방문 직원은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하여 학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가정 방문 시 충족되지 않은 요구사항이나 특별한 어려움이 관찰되는 경우, 치매환자나 돌봄 제공자가 관련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치매안심센터로 보내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치과 의료기관

치매환자들은 그들의 변화된 인지상태나 기능적 능력의 변화로 인하여 구강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고령자는 충치에 대해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건조한 구강, 감염 및 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충분한 영양섭취, 치주질환으로 인한 잇몸의 감염과 같은 구강 건강에 위험이 높은 상태에 놓여 있어 구강 관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인지능력 저하는 개인이 구강 관리실천 수행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관절염과 같은 상태로 인해 손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응 보조 기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치매가 더욱 진행된 상태의 치매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없으며, 구강 질환을 앓게 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치매 환자의 선호와 성격을 직접 알고 있는 돌봄제공자는 성공적인 치과 진료를 위한 구강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치매 환자는 구강 건강 변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하며, 이러한 구강 건강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치매 환자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치과 진료를 하게 될 때, 구강 건강관리 제공자는 가족이나 친구가 환자 옆에서 눈을 마주치거나 손을 잡는 등 편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 치과용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치매 환자에게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한된 시간 안에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소음과 다른 자극이 최소로 유지되는 평온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치매 환자가 평온하고 협조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가능하다면 치료과정을 연습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이 협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치매 환자에게는 간병인과 구강 건강관리 제공자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치과 절차를 수행할 때, 모든 돌봄제공자와 구강 건강관리 제공자는 경험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7 경찰서 및 소방서 등

- 치매 환자는 쉽게 길을 잊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는 길을 쉽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 치매를 가진 사람이 길을 잊은 경우, 다가오는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들은 때때로 구입비를 지불하는 것을 잊은 채 상점을 나오려하거나 무전 취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점 보안요원이나, 직원이 그들을 격리하거나 경찰서에 그들을 신고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그 사람이 치매를 앓고 있는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 상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최상의 대응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도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친근한 장소로 이동할 때도 갑자기 자신이 길을 잊은 듯 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표시들이 주변 환경과 매우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 되어 잘 눈에 띄지 않는 경우 이러한 표시들을 구분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비표준적인 교차로와 일반 통행로는 특히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찰이나 소방관계자가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현장문제를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치매환자 배회 및 실종 예방 지침’과 ‘치매환자 도움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홍보하며,

지역 치매안심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위기대응기관 등과 연락하여 치매환자들이 귀가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하여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은 치매환자가 실종된 것으로 신고 된 경우,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치매환자 안전관리 시스템(치매인식표, 배회감지기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9생명번호 서비스’는 첫 번째 발견자나 기타 응급 처치요원이 취약대상자(독거노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119 생명번호 스티커’ 등을 취약대상자 거주지 문 안팎에 부착하거나 냉장고 등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합니다.

‘119 생명번호 팔찌’의 경우 손목에 착용하는데 이 장치에는 긴급 연락처 및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포함하여 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119센터에 연락하여 그들의 파일 정보에 추가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첫 번째 발견자에게 치매 환자 등 취약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집깐! 치매환자의 이상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갑자기 의심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등 이상행동을 하면 이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있었다든지, 불안하게 만들 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유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찾을 수 없다면 몸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치매전문기관 현황

광역치매센터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4 가천뇌과학연구원 4층	☎ 472-2027~9
-------------	------------------------------	--------------

치매안심센터

중구치매안심센터	중구 참외전로72번길21 중구보건소 1층	☎ 760-6029
	중구 운남서로 100-1(영종지역)	☎ 760-6828
동구치매안심센터	동구 석수로 90 동구보건소 2층	☎ 770-5732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롯데월드타워 9층	☎ 876-4310
연수구치매안심센터	연수구 예술로20번길 15	☎ 899-9411
남동구치매안심센터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3층	☎ 453-5076
부평구치매안심센터	부평구 부흥로 291 부평구보건소 4층	☎ 505-5940
계양구치매안심센터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보건소 1층	☎ 555-5395
서구치매안심센터	서구 승학로 263 구립연희노인문화센터 3층	☎ 567-9115
강화군치매안심센터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1	☎ 930-4057
옹진군치매안심센터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보건소 3층	☎ 899-3166

치매안심돌봄터

중구치매안심돌봄터	중구 흥예문로 78-1	☎ 765-3545
동구치매안심돌봄터 희망의집	동구 동산로 34	☎ 765-8291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 미추홀돌봄의집	미추홀구 경인로51번길 21	☎ 883-0310
미추홀구치매안심돌봄터 학익돌봄의집	미추홀구 재넘이길61번길 55	☎ 876-0310
연수구치매안심돌봄터	연수구 예술로20번길 15 기억과마음 치매정신통합센터 1층	☎ 899-9400
남동치매안심돌봄터 사랑의집	남동구 호구포로 292 논현종합사회복지관 3층	☎ 433-7443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8	☎ 453-5972
부평구치매안심돌봄터 갈산행복의집	부평구 주부토로262번길 45-7	☎ 523-4466
부평구치매안심돌봄터 부평행복의집	부평구 부흥로 291 부평보건소 4층	☎ 523-2224
계양구치매안심돌봄터 늘봄사랑터	계양구 장제로 728 영프라자 6층	☎ 555-1601
계양구치매안심돌봄터 장기늘봄사랑터	계양구 장기서로 8 장기보건지소 4층	☎ 553-7900
서구치매안심돌봄터	서구 승학로 263 구립연희노인문화센터 3층	☎ 579-9112
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1	☎ 933-8979

시립병원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서구 심곡로132번길 21-1	☎ 562-5107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계양구 드림로 852	☎ 554-83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대표번호: 1577-1000)

인천중부지사	중구 인중로 96, 5층(신흥동2가, 누리타워)	☎ 770-7250
인천남부지사	미추홀구 인주대로 368	☎ 870-4260
연수출장소	연수구 청능대로 145	☎ 821-4102
인천계양지사	계양구 봉오대로 668 영신빌딩 4,5층	☎ 550-6250
인천서부지사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청라빌딩 9,10층	☎ 560-9270
강화출장소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04번길 5 청담빌딩 5층	☎ 933-9003
인천남동지사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9층(한국토지주택공사)	☎ 452-7106
인천부평지사	부평구 안남로434번길 11	☎ 509-4106